

일부 치기공과 대학생들의 해외취업에 관한 의식 조사 연구

박 남 규 · 정 효 경*

(제주관광대학 치기공과, 대구보건대학 치기공과*)

Abstract

A Study on the Recognition Level of Employment and Overseas Employment among Students Majoring in Dental Technology

Nam-Gyu Park · Hyo-Kyung Jung*

*Department of Dental Technology, Cheju Tourism College
Department of Dental Technology, Daegu Health Colleg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research into the recognition level of employment and overseas employment on 173 students majoring in dental technology at two colleges in Daegu metropolitan city and Jeju self-governing island through questionnaires which are recorded individually.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About 31.8% students chose dental technician department taking their aptitude into consideration when they entered college. 52% students gained information about dental technology through internet, and 57.3% students among them, which was the highest level, were under age 20.

2. 48.6% students responded that they thought the level of satisfaction with major was average and there was a difference according to their ages among the level of satisfaction or dissatisfaction with their major and the previous knowledge of major they had gained before entering college. 75.1% students said they wouldn't transfer to other major even if they were given the chance, which was much higher than the opposite case. And only 2.3% students had dissatisfaction at their major, which means students majoring dental technology evaluate their major positively.

교신	성명	정 효 경	전화	053-320-1867	E-mail	hkjung@mail,dhc.a.ckr
저자	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동 산7번지 대구보건대학 치기공과				

3. Most students(58.4%) wanted to get a job for living cost and 53.2% students took advice from their seniors or elderly people in choosing their jobs. 64.7% students answered they should have professional skills to get a good job, which was different according to their ages. In addition, 51.4% students of dental technology department regarded the opportunities to exert their abilities as the most important element in choosing their jobs. That means students value self-decision and self-realization when they choose their jobs.

4. The majority of students(32.9%) preferred to work at the dental laboratory in dental college hospital as their workplace. Moreover, seniors over age 21 wanted to work in the field of porcelain and juniors under age 20 preferred to work in the implant part concerning the field which students wants to work.

5. About 91.3% students have ever heard about overseas employment and wanted to work abroad if given the opportunities(77.5%). This points out students have much interest in overseas employment and positive attitude. And there was a difference according to age and grade in case of the preferred country when they work abroad

6. The main barrier to overseas employment was a lack of communication ability(63.0%), therefore, students thought foreign language education should be activated to improve overseas employment(26.0%). To show this more specifically, juniors thought foreign language education and internship are most important factors(both are 21.4% alike), while seniors thought foreign language education is essential(24.6%) as a way to improve overseas employment. Students also thought that participation in language study club helps to prepare for overseas employment(69.4%).

When putting all these survey results together, it's very important to develop people in advance who have job ability and language ability necessary for overseas employment as well as to improve job awareness in the field of dental technology. Consequently, it's needed to seek for various ways to get a overseas job through foreign language education and overseas internship.

- Key word : Students Majoring in Dental Technology, Overseas Employment, Recognition Level of Employment.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 사회가 복잡·다기능·구조화되면서 학

생들은 물론 일반인들까지 다양한 직업과 진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직업은 개인에게 생계유지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함과 동시에 개인의 잠재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적, 정서적 욕구를 충

족시켜 자아실현을 추구하여 주는 역할을 의미한다. 특히 청년기에 있어 진로를 결정하고 학업이나 직업과 관련하여 명확한 장래를 계획하는 것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발달과업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대학생들은 직업(job)을 위한 준비가 중요시 된다(황성원, 1998). 따라서 대학은 전통적인 학문과 연구의 기능 외에 현대 사회의 급격한 변화 및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유능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함으로써 국가사회에 봉사하기를 기대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교육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건강의 개념이 변화하면서 구강건강관리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구강보건의 수요가 증가됨에 따른 인력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Fuerst와 Wolf(1954)는 전문직이란 윤리적 관념을 가지고 인간사회 복지의 발전에 공헌하는 직업으로 전문 직업이 될 수 있는 객관적 조건들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직업인의 하나인 치과기공사는 치과진료를 행하는 의료기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이 인정하는 치과기공소에서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치과기공물, 충전물, 교정 장치의 제작, 수리 또는 가공 기타 치과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다(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5항).

우리나라에서 치과기공사의 양성은 1971년 고려대학교 병설보건대학 치기공과를 시초로 2000년도 이후에는 7개의 치기공과가 개설되어, 현재 전국 3년제 18개 대학과 4년제 2개 대학, 총 20개 대학에서 치기공학에 대한 전문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4년제 치기공과의 학제 연장은 다양한 전공 교과목을 접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하여 전문 인력양성을 확대하고 있다.

교육기회의 확대와 활발한 국제교류 덕분에 각국의 의료개방 확대와 국가 간의 의료분야 격차감소 등으로 인해 한국 산업인력공단은 국내 인력의 해외노동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1998년부터 정부차원의 공공 해외 취업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다(남성일, 1998).

해외취업은 한 나라의 노동력이 자기나라의 영토를 벗어나 외국에서 수입을 목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고용되어 일하기 위해 자발적이고 일시적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는 해외 이민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해외이민은 영구적인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데 비하여, 해외취업은 일정기간 동안의 한시적인 취업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이 다르다. 일시적인 이동의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는 해외취업 이외에 해외유학, 해외공연, 단순한 해외여행 등이 있으나, 이동의 목적이 임금 혹은 봉급으로 국외에서 이루어진 고용관계 여부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해외취업은 임금 또는 봉급 등의 수입을 목적으로 자국의 인력이 고용되기 위하여 외국으로 나가는 일시적인 이동이지만 보내는 나라와 받는 나라와의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 현지에 거주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 해외취업이 해외이주로 전환하게 된다(박양근 · 남상균, 1999).

최근 해외 취업 실적(산업인력공단 중심)을 보면 구인수요는 매년 2,600~2,700명 수준이고, 실제 취업으로 연결된 숫자는 2004년과 2005년 동안 총 2,000명 수준이며 언어 자격 등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인력이 부족(주로 언어 소통이 결핍)한 실정이다(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2006). 또한 최근 우리나라 해외취업 양상의 특

징 중 하나는 전문직을 위주로 한 특정분야 경력자를 중심으로 해외취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구인 조건은 직무능력과 어학능력 그리고 특정분야에 경력을 갖춘 우수한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다. 아울러 과거의 해외취업은 대량 집단취업에서 정보기술, 의료직등 전문직을 위주로 한 해당분야 개별취업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주로 대부분이 북미, 캐나다, 호주, 일본, 동남아 등의 지역으로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의 해외취업 전망을 보면 해외 인력 수입 업무에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있으며 전적으로 민간기업의 소관이며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채용신청을 승인하는 역할만 담당한다.

미국 내 취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영어 구사능력이 기본이며, 현재 정보기술직종 및 보건관련 직종에서 인력이 부족하여 이 분야의 취업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울러 캐나다는 미국과 함께 최대의 해외 취업처로 부상하고 있으며, 쿼터의 제한이 없는데다 방문비자로 6개월 동안 체류가 가능하다. 외국인 채용은 본국의 인력부족 직종이나 본국의 인력으로 대체가 어려운 특수직종이 대상이 된다.

고용절차는 고용주가 해당지역 인력개발센터(Human Resources Center)에 구인요청을 하면 인력개발센터는 컴퓨터를 통해 전국적인 검색을 하고 고용주도 신문에 구인 공고문을 게재한 후 캐나다 내에서 인력충당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고용계약서상 임금, 근로조건 등의 적절성 여부를 심사한 후 외국인 고용을 승인한다. 또한 호주와 오세아니아 지역의 인력수급은 지역특성상 서비스관련업종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경기침체에 따라 수요가 감소하는 추세이며, 영어 능통

자와 영주권자를 선호하는 추세로써 한국 인력의 진출은 어려운 것으로 전망된다. 현지 회사에서 요구하는 전문 인력은 언어상의 문제가 없는 고도의 전문 기술보유자이며 주재국 정부는 동 기술보유자를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경우에 승인하고 있으므로 외국 인력의 취업 가능성은 아주 제한된 실정이다(한국산업인력공단, 1999). 따라서, 전문적인 기술 및 숙련도를 요하는 치과기공은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우리나라의 우수한 치과기공사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는 실정이며, 치기공과 학생들의 해외취업에 대한 의식에 있어 기존의 연구는 거의 보고 된 바가 없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치기공과 대학생들의 해외취업에 대한 관심도와 필요한 사항 등을 분석하여 해외취업에 대한 관심도를 향상시키고 세계화에 따른 최적의 교육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에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치기공과 대학생들의 입학 전 학과에 대한 사전 인지도와 만족도를 조사하여 교육개선 방안의 기초자료를 마련한다.

둘째, 치기공과 대학생의 일반적인 특성과 치기공과 사전 인지도, 학과만족도, 취업의식, 해외취업 관심도, 해외 취업 촉진방안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본다.

셋째, 치기공과 대학생의 취업 및 해외취업의 기초 자료로 제공하여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려고 한다.

II.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및 연구기간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와 제주도 소재 대학 내 치기공과 재학 중인 1, 2, 3학년 학생 중 200명을 무작위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배포 및 회수는 직접방문을 통하여 각 학년에 배부하고 연구목적과 설문지 기입 요령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익명으로 학생 각자가 기입케 한 후 그 자리에서 회수하였다. 2007년 4월 6일부터 4월 25일까지 20일 동안 이루어졌으며 배포된 총 200부의 설문지중 173부(86.5%)를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2. 자료수집 및 방법

본 연구의 설문지는 김화주(2005)의 설문지를 중심으로 자기기입식 조사표를 개발하였으며, 설문지의 구성은 치기공과 사전인지도 4문항, 학과만족도 4문항, 취업의식 8문항, 해외취업에 관한 관심도 5문항, 해외취업 시 추진방안 3문항 등을 조사대상자 관련사항 4가지 부분을 대별하여 총 2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for window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방법으로 통계처리 하였다.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회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2.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취업의식도와 해외취업의식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별 분포 결과는 표 1과 같다. 학년은 1학년이 104명(60.1%), 2,3학년이 69명(39.9%)이었으며, 성별은 남성이 106명(61.3%), 여성이 67명(38.7%)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20세 이하 82명(47.4%), 21~24세 61명(35.3%), 25세 이상 30명(17.3%)이었으며, 출신 고등학교는 인문계 121명(69.9%), 실업계가 50명(28.9%), 기타 2명(1.2%)으로 나타났다.

2. 학과에 관한 사전인지도

치기공과 재학생의 학과에 관한 사전인지도는 표 2와 같다. 현재 재학 중인 치기공과는 입학 시 어느 정도 희망하던 학과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1지망이 81.4%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입학동기로 자신의 적성이 31.8%, 부모, 친지, 선배 권유가 28.9%, 높은 취업률 때문이 20.8%, 기타 13.9%, 선생님 권유가 4.6% 순서로 나타났다. 치기공과의 선호도가 1지망 선택 항목에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입학동기로 자기 적성을 고려하여 지원했다는 점이 높은 비율로 나타난 것은 앞으로 치기공과의 취업과 전망은 보장되고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73

구 분	항 목	N(%)
학 년	1학년	104(60.1)
	2, 3학년	69(39.9)
성 별	남	106(61.3)
	여	67(38.7)
연 령	20세 이하	82(47.4)
	21~24세	61(35.3)
	25세 이상	30(17.3)
출신 고등학교	인문계	121(69.9)
	실업계	50(28.9)
	기 타	2(1.2)

치기공과 선택 시 정보를 얻은 곳으로 인터넷이 52%로 가장 많았으며 선배 및 교사가 20.8%, 대학입시요강 20.2%, 치과기공사 및 치과기공경험 5.8%, 서적, 신문 라디오 매체 1.2% 순으로 나타났다. 학과 사전 지식정도의 질문에는 보통이다가 43.0%, 알지 못함이 22.1%, 전혀 알지 못함 18.6%, 알고 있음 11.6%, 충분히

알고 있음 4.7%로 나타났다.

3. 학과만족도

치기공과 재학생의 학과만족도는 표 3과 같다. 치기공과 진학에 대한 만족도와 전공과목에 대한 만족에서 보통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표 2〉 치기공과 학생들의 학과에 대한 사전인지도

N=173

구 분	항 목	N(%)
치기공과 지망	1지망	140(81.4)
	2지망	17(9.9)
	지망하지 않던 학과	8(4.7)
	기 타	8(4.7)
입학동기	자신의 적성	55(31.8)
	선생님 권유	8(4.6)
	부모, 친지, 선배 권유	50(28.9)
	높은 취업률	36(20.8)
	기 타	24(13.9)

→ 계속

← 계속

구 분	항 목	N(%)
학과관련 정보습득 경로	인터넷	90(52.0)
	서적, 신문 라디오 매체	2(1.2)
	대학입시요강	35(20.2)
	선배 및 교사	36(20.8)
	치과기공사 및 치과기공 경험	10(5.8)
학과사전인식정도	전혀 알지 못함	32(18.6)
	알지 못함	38(22.1)
	보통이다	74(43.0)
	알고 있음	20(11.6)
	충분히 알고 있음	8(4.7)
	무응답	1(0.0)

전공과목에 대한 불만 이유로 기타 41.6%, 이론 과 실제가 불일치 17.9%, 교육내용이 기대와 다름 16.8%, 과중한 과제량 13.9%, 과중한 수업량 9.8%순으로 나타났다. 전과여부의 질문에 전과 하지 않겠다고 75.1%로 가장 많았다.

〈표 3〉 학과 만족도에 관한 사항

N=173

구 분	항 목	N(%)
치기공과 진학에 대한 만족도	불만족	10(5.8)
	보 통	84(48.6)
	만 족	79(45.7)
전공과목에 대한 만족도	불만족	4(2.3)
	보 통	103(59.5)
	만 족	66(38.2)
전공과목에 대한 불만 이유	이론과 실제 불일치	31(17.9)
	과중한 과제량	24(13.9)
	교육내용이 기대와 다름	29(16.8)
	과중한 수업량	17(9.8)
	기 타	72(41.6)
전과여부	전과하지 않음	130(75.1)
	전 과	7(4.1)
	잘 모름	36(20.8)

4. 치기공과 재학생의 취업인식

치기공과 재학생의 취업인식은 표 4와 같다. 취업 동기는 경제적 이유가 58.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기발전, 사회적 경험, 지식활용,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직장선택시 조언자로 윗사람·선배가 53.2%, 직장 선택 시 중요한 기준으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 가능한 곳이 51.4%, 좋은 직장을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전문적 기술이 64.7%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취업을 희망하는 근무처로 치과대학병원 기공실이 32.9%, 치과 기공소 30.6%, 해외진출이 18.5% 등으로 조사되었으며, 희망하는 치기공 분야로 도재기공이 22.5%, 임플란트 21.9%, 관교의치 17.3%, 기타 15.2%, 교정 11.6%, 총의치 6.4%, 국부의치 5.2%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 후 근무여부에서는 계속하겠다가 57.2%로 가장 많았으며, 현재 치과기공사의 사회적 지위정도는 보통이다가 62.4%로 나타났다.

〈표 4〉 취업에 대한인식

N=173

구 분	항 목	N(%)
취업동기	자기발전	52(30.0)
	경제적 이유	101(58.4)
	사회적 경험	10(5.8)
	지식활용	5(2.9)
	기 타	5(2.9)
직장 선택시 조언자	친구나 동료	8(4.6)
	윗사람·선배	92(53.2)
	자신의 생각	41(23.7)
	전공학과 교수 의견	28(16.2)
	기 타	4(2.3)
직장 선택 시 기준	자신의 능력을 발휘 가능한 곳	89(51.4)
	고임금	27(15.6)
	사회적 인식	39(22.5)
	후생복지시설이 잘 갖춰진 곳	14(8.1)
	기 타	4(2.3)
좋은 직장을 위한 조건	전문적 기술	112(64.7)
	고학력	2(1.2)
	경제력	11(6.4)
	신용, 성실 등	28(16.2)
	투철한 직업정신	20(11.6)

→ 계속

← 계속

구 분	항 목	N(%)
희망하는 근무처	치과대학병원 기공실	57(32.9)
	치과 기공소	53(30.6)
	치과의원 기공실	12(6.9)
	치과병원 기공실	13(7.5)
	일반 공무원 및 교육자	3(1.7)
	해외진출	32(18.5)
	기 타	3(1.7)
	희망하는 분야	관교의치
	도 재	39(22.5)
	국부의치	9(5.2)
	총의치	11(6.4)
	교 정	20(11.6)
	임플란트	38(21.9)
	기 타	26(15.2)
결혼 후 근무여부	계속 하겠다	99(57.2)
	사정대로	21(12.1)
	안 하겠다	1(0.6)
	기 타	52(30.1)
사회적 지위인식정도	높은 편	28(16.2)
	보 통	108(62.4)
	낮은 편	37(21.4)

5. 해외취업에 관한 관심정도

치기공과 재학생의 해외취업 관심도는 표 5와 같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해외취업에 대해 들어 본 경험이 있다가 91.3%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외취업에 대한 정보습득 경로는 학과관련 교수를 통해서가 43.4%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해외

취업과 관련하여 세미나의 참석여부 질문에는 참석함이 56.1%로 더 많았으며, 해외취업의 기회가 있다면 취업한다가 77.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해외취업하고 싶은 나라로 호주 28.3%, 캐나다 26.6%, 미국 16.8%, 기타 11.6%, 유럽 10.4%, 일본 6.4%순으로 나타났다.

〈표 5〉 해외취업에 관한 관심도

N=173

구 분	항 목	N(%)
해외취업에 대해 들어본 경험	들어봄	158(91.3)
	들어본 적 없음	15(8.7)
해외취업에 대한 정보습득 방법 및 입학동기	인터넷 및 신문	50(28.9)
	학과관련 교수	75(43.4)
	친구 및 선·후배	22(12.7)
	기 타	26(15.0)
해외취업 관련 세미나 참석여부	참석함	97(56.1)
	참석 안함	76(43.9)
해외취업 여부	취업 한다	134(77.5)
	취업 안함	25(14.5)
	기 타	14(8.1)
해외취업 희망국가	미 국	29(16.8)
	캐나다	46(26.6)
	호 주	49(28.3)
	유 럽	18(10.4)
	일 본	11(6.4)
	기 타	20(11.6)

6. 해외취업 시 촉진방안

치기공과 재학생의 해외 취업 시 촉진방안은 표 6과 같다. 해외취업 시 장애요인으로 의사소통부족이 63.0%, 해외거주 경험부족 13.3%, 문화적·사회적 차이 10.4%, 관련정보 수집에 어려움 9.2%, 기타 4.0%순으로 나타났다. 해외취업이 촉진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외국어 교육의 활성이 26.0%, 해외인턴제도 개발 21.4%, 해외 구인처 정보 수집 및 개발 17.9%, 해외 교육기관과의 상호교류를 통한 정보가 14.5%, 선진국과 격차 없는 교육과 교육자료 개

선 11.0%, 교환과 유대관계 개선 9.2%로 순으로 나타났다. 해외취업을 대비해 대학생활에 필요한 활동으로 어학관련 동아리가 69.4%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7. 연령별 치기공과 재학생들의 사전인지도, 학과 만족도, 취업의식, 해외 취업 관심도 및 해외취업 시 촉진방안 차이분석

연령에 따른 치기공과의 사전인지도, 학과만족도, 취업의식, 해외취업에 관한 특성들을 알아보기 위하여 연령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치기공

〈표 6〉 해외 취업에 대한 인식

N=173

구 분	항 목	N(%)
해외취업 시 장애요인	의사소통 부족	109(63.0)
	해외거주 경험부족	23(13.3)
	관련정보 수집에 어려움	16(9.2)
	문화적, 사회적 차이	18(10.4)
	기 타	7(4.0)
해외 취업이 활성화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	해외 구인처 정보 수집 및 개발	31(17.9)
	선진국과 격차 없는 교육과 교육자료 개선	19(11.0)
	외국어 교육의 활성화	45(26.0)
	해외 인턴제도 개발	37(21.4)
	해외 교육기관과의 상호교류를 통한 정보 교환과 유대관계 개선	25(14.5) 16(9.2)
해외 취업을 대비해 필요한 활동	어학관련 동아리	120(69.4)
	전공 관련 동아리	39(22.5)
	컴퓨터관련 동아리	2(1.2)
	기 타	12(6.9)

과의 사전인지도, 학과에 관한 만족도, 취업의식, 해외취업에 관한 관심도 및 해외취업 시 촉진방안 등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7과 같다.

표 7에 의하면 연령에 따라 학과정보의 습득 경로, 학과사전 지식정도, 전공에 대한 만족, 전공에 대한 불만족, 직업을 갖기 위해 중요한 조건, 근무하고 싶은 치기공 분야, 사회적인 지위 정도, 해외취업 시 희망하는 나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1) 연령별 학과정보 습득 경로의 차이분석

인터넷을 통한 습득이 20세 이하가 57.3%, 21~24세가 50.8%, 25세 이상이 40.0%로 나타

났고, 20세 이하에서는 선배들이나 교사를 통한 학과정보 습득이 22.0%로 나타났으며, 21~24세의 경우에는 대학입시 요강으로 보고 습득한 것이 26.2%로 그 뒤를 이었으며 25세 이상의 경우에는 치과기공사 및 치과기공 경험으로 통한 학과정보 습득이 30.0%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chi^2=41.516, p<.001$)

즉 연령과 관계없이 학과에 대한 정보를 제일 많이 습득하는 경로는 인터넷으로 나타났고 연령이 25세 이상인 경우에는 치과기공에 대한 경험으로 학과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있었으며, 25세 이하인 경우에는 주변이나 입시요강을 통해 학과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연령별 학과에 대한 인식정도의 차이분석

20세 이하에서 알지 못함이 43.9%, 21~24세가 47.5%, 25세 이상에서는 보통이 44.8%로 가장 많았으며, 25세 이상에서 알고 있음이 37.9%로 24세 이하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chi^2=15.176, p<.01$).

3) 연령별 전공만족도

보통이다가 20세 이하에서 57.3%, 21~24세가 68.9%, 25세 이상에서는 만족이 50.0%로 가장 많았다($\chi^2=9.432, p<.05$).

4) 연령별 전공 불만족 사유의 차이분석

20세 이하 기타에서가 47.6%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과중한 과제량이 19.5%로 나타났다. 21~24세에서는 기타에서 37.7%로 높게 나타났고 이론과 실제의 불일치가 26.2%를 보였다. 25세 이상에서는 기타에서 33.3%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교육내용이 기대와 다름에서가 30.0%로 나타났다($\chi^2=22.136, p<.01$).

5) 연령별 직업을 갖기 위한 중요한 조건에 대한 차이분석

전문적인 기술이 20세 이하가 42.7%, 21~24세가 55.7%, 25세 이상이 66.7%로 가장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chi^2=17.415, p<.05$). 즉 연령과 관계없이 직업을 갖기 위해 제일 중요한 조건으로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연령별 근무하고 싶은 치기공 분야의 차이 분석

20세 이하에서는 임플란트가 28.4%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도재분야에서는 21~24세 27.9%, 25세 이상 40.0%로 21세 이상에서 도재분야가 가장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chi^2=21.005, p<.05$).

7) 연령별 현재 사회적 지위정도의 차이분석

보통이다가 20세 이하 50.0%, 21~24세가 80.3%, 25세 이상이 60.0%로 가장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chi^2=21.877, p<.001$).

8) 연령별 해외취업 시 희망국가의 차이분석

캐나다가 20세 이하에서는 32.9%, 25세 이상에서는 33.3%로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21~24세에서는 호주가 46.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chi^2=26.950, p<.01$).

8. 재학생들의 학년별 치기공과 사전인지도, 학과만족도, 취업의식, 해외취업 관심도 및 해외 취업 시 촉진방안 차이분석

학년별 치기공과의 사전인지도, 학과만족도, 취업의식, 해외취업에 관한 특성들을 알아보기 위하여 학년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치기공과의 사전인지도, 학과에 관한 만족도, 취업의식, 해외취업에 관한 관심도 및 해외취업 시 촉진방안 등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8과 같다.

표 8에 의하면 학년에 따라 근무하고 싶은 치기공 분야, 사회적인 지위정도, 해외취업 관련 세미나 참석여부, 해외취업 시 희망하는 국가 및 해외취업 시 개선할 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표 7〉 연령에 따른 사전인지도, 학과만족도, 취업의식, 해외취업 관심도 및 해외취업 시 촉진방안 차이분석

변 인	구 분	20세 이하 N(%)	21~24세 N(%)	25세 이상 N(%)	전체 N(%)	통계량
학과정보 습득경로	인터넷	47(57.3)	31(50.8)	12(40.0)	90(50.0)	$\chi^2=41.516$ df=8 p=.000
	서적, 신문, 라디오 매체	1(1.2)	1(1.6)	0(.0)	2(1.2)	
	대학입시 모집요강	16(19.5)	16(26.2)	3(10.0)	35(20.2)	
	선배 및 교사	18(22.0)	12(19.7)	6(20.0)	36(20.8)	
	기 타	0(.0)	1(1.6)	9(30.0)	10(5.8)	
학과에 대한 인식정도	치과기공사 및 치과기공 경험	36(43.9)	29(47.5)	6(17.2)	70(40.7)	$\chi^2=15.176$ df=4 p=.004
	알지 못함	35(42.7)	26(42.6)	13(44.8)	74(43.0)	
	보 통	11(13.4)	6(9.8)	11(37.9)	28(16.3)	
전공 만족도	알고 있음	0(.0)	3(4.9)	1(3.3)	4(2.3)	$\chi^2=9.432$ df=4 p=.050
	불만족	47(57.3)	42(68.9)	14(46.7)	103(59.5)	
	보 통	35(42.7)	16(26.2)	15(50.0)	66(38.2)	
전공 불만족	만 족	7(8.5)	16(26.2)	8(26.7)	31(17.9)	$\chi^2=22.136$ df=8 p=.005
	이론과 실제의 불일치	16(19.5)	8(13.1)	0(.0)	24(13.9)	
	과중한 과제량	11(13.4)	9(14.8)	9(30.0)	29(16.8)	
	교육내용이 기대와 다름	9(11.0)	5(8.2)	3(10.0)	17(9.8)	
	과중한 수업량	39(47.6)	23(37.7)	10(33.3)	72(41.6)	
직업을 갖기 위한 중요한 조건	전문적인 기술	35(42.7)	34(55.7)	20(66.7)	89(51.4)	$\chi^2=17.415$ df=8 p=.026
	높은 학력	19(23.2)	7(11.5)	1(3.3)	27(15.6)	
	경제력	22(26.8)	13(21.3)	4(13.3)	39(22.5)	
	신용, 성실 등	5(6.1)	4(6.6)	5(16.7)	14(8.1)	
	투철한 직업정신	1(1.2)	3(4.9)	0(.0)	4(2.3)	
근무하고 싶은 치기공 분야	관교의치	14(17.3)	11(18.0)	5(16.7)	30(17.4)	$\chi^2=21.005$ df=12 p=.050
	도 재	10(12.3)	17(27.9)	12(40.0)	39(22.7)	
	국부의치	1(1.2)	6(9.8)	2(6.7)	9(5.2)	
	총의치	6(7.4)	3(4.9)	2(6.7)	11(6.4)	
	교 정	13(16.0)	5(8.2)	2(6.7)	20(11.6)	
	임플란트	23(28.4)	10(16.4)	5(16.7)	38(22.1)	
	기 타	14(17.3)	9(14.8)	2(6.7)	26(14.5)	

→ 계속

← 계속

변 인	구 분	20세 이하 N(%)	21~24세 N(%)	25세 이상 N(%)	전체 N(%)	통계량
사회적 지위정도	높은 편	23(28.0)	3(4.9)	2(6.7)	28(16.2)	$\chi^2=21.877$ df=4 p=.000
	보 통	41(50.0)	49(80.3)	18(60.0)	105(62.4)	
	낮은 편	18(22.0)	9(14.8)	10(33.3)	37(21.4)	
해외취업 시 희망국가	미 국	17(20.8)	9(15.0)	3(10.0)	29(16.8)	$\chi^2=26.950$ df=10 p=.003
	캐나다	27(32.9)	9(15.0)	10(33.3)	46(26.6)	
	호 주	14(17.0)	28(46.6)	7(23.3)	49(28.3)	
	유 럽	10(12.2)	8(13.3)	0(.0)	18(10.4)	
	일 본	6(7.3)	2(3.3)	3(10.0)	11(6.4)	
	기 타	8(9.8)	5(8.3)	7(23.3)	20(11.6)	

한 차이가 나타났다.

1) 학년별 근무하고 싶은 치기공 분야의 차이 분석

1학년에서는 임플란트가 26.9%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2,3학년에서는 도재분야가 31.9%로 가장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chi^2=20.956$, $p<.05$).

2) 학년별 현재 사회적 지위인식정도의 차이분석
‘보통이다’가 1학년에서 54.8%, 2,3학년에서 72.7%로 가장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chi^2=11.460$, $p<.01$).

3) 연령별 해외취업 관련세미나 참석여부의 차이분석

1학년에서는 ‘참석한다’가 63.5%, 2,3학년에서는 55.1%가 ‘참석 안한다’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chi^2=5.785$, $p<.05$).

4) 연령별 해외취업 시 희망국가의 차이분석

1학년에서는 ‘캐나다’가 31.7%, 2,3학년에서는 ‘호주’가 39.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12.571$, $p<.05$).

5) 해외취업 시 개선할 점

1학년에서는 외국어 교육과 해외 인턴제도가 공히 26.9%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2,3학년에서는 외국어 교육이 24.6%로 가장 많이 나타나 해외취업 시 개선점으로 외국어 교육의 중요성을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12.336$, $p<.05$).

IV. 고 찰

1. 주요 연구결과의 해석

1) 치기공과 재학생의 취업의식도

치기공과 재학생들의 입학 시 어느 정도 희망

〈표 8〉 학년별 사전인지도, 학과만족도, 취업의식, 해외취업 관심도 및 해외취업 시 촉진방안 차이분석

변 인	구 분	1학년 N(%)	2, 3학년 N(%)	전체 N(%)	통계량
근무하고 싶은 치기공분야	관교의치	16(15.4)	14(20.3)	30(17.3)	$\chi^2=20.956$ df=6 p=.002
	도 재	17(16.3)	22(31.9)	39(22.5)	
	국부의치	1(1.0)	8(11.6)	9(5.2)	
	총의치	8(7.7)	3(4.3)	11(6.4)	
	교 정	15(14.4)	5(7.2)	20(11.6)	
	임플랜트	28(26.9)	10(14.5)	38(21.9)	
	기 타	19(18.3)	7(10.1)	26(15.2)	
사회적 지위인식정도	높은 편	25(24.0)	3(4.5)	28(16.5)	$\chi^2=11.460$ df=2 p=.003
	보 통	57(54.8)	48(72.7)	105(61.8)	
	낮은 편	22(21.2)	15(22.7)	37(21.8)	
해외취업 관련 세미나 참석여부	참 석	66(63.5)	31(44.9)	97(56.1)	$\chi^2=5.785$ df=1 p=.019
	참석 안 함	38(36.5)	38(55.1)	76(43.9)	
해외취업 시 희망 국가	미 국	21(20.1)	8(11.6)	29(16.8)	$\chi^2=12.571$ df=5 p=.028
	캐나다	33(31.7)	13(18.8)	46(26.6)	
	호 주	22(21.2)	27(39.1)	49(28.3)	
	유 럽	10(9.6)	8(11.6)	18(10.4)	
	일 본	9(8.7)	2(2.9)	11(6.4)	
	기 타	9(8.7)	11(16.0)	20(11.6)	
해외취업 시 개선할 점	구인 정보수집	16(15.4)	15(21.7)	31(17.9)	$\chi^2=12.336$ df=5 p=.030
	교육의 개선	11(10.6)	8(11.6)	19(11.0)	
	외국어 교육	28(26.9)	17(24.6)	45(26.0)	
	해외인턴제도	28(26.9)	9(13.0)	37(21.4)	
	해외교육기관 상호교류	9(8.7)	16(23.2)	25(14.5)	
	교환과 유대관계개선	12(11.5)	4(5.8)	16(9.2)	

하던 학과인가에 대한 조사결과 1지망(81.4%)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입학 동기는 자신의 적성을 고려(31.8%)해서 선택한 경우가 가장 많게 조사되었다. 이 결과는 기존의 연구에서는 학과 선택 시 취직의 용이성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

으나(김화주, 2005) 본 연구에서는 적성을 고려하는 것이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다. 치기공과를 선택할 때 정보습득은 주로 인터넷으로 정보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보화 시대로 갈수록 인터넷에 의한 정보습득을 하는 학생

이 많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공에 대한 만족도에서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48.6%로 나타나 기존의 연구에서 '매우 만족한다'는 결과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최에스더, 2004). 하지만 전과여부의 질문에서는 '전과하지 않겠다'가 75.1%를 차지하고 있어 불만족도 2.3%의 수준이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치기공과의 사전의식도와 전공 만족도를 토대로 취업인식을 살펴보았다.

취업 동기로는 경제적 이유(58.4%)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직장선택시 조연자로 윗사람·선배(53.2%)에게 도움을 받아 좋은 직장을 위해 전문적 기술(64.7%)을 가지고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가능한 곳(51.4%)에서 취업하기를 희망하였다. 이는 치과기공 직업 특성상 기술 의존도가 높음에 따라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취업을 희망하는 근무처로 치과대학 병원기공실(32.9%), 치과기공소(30.6%), 해외진출(18.5%) 등으로 조사되었으며, 최근 보철기공의 최신동향인 심미보철과 특수보철의 인기에 따라 21세 이상 2,3학년에서는 도재(31.9%), 20세 이하 1학년에서는 임플란트(26.9%)분야를 선호하였다.

2) 치기공과 재학생의 해외 취업에 대한 관심도 및 해외취업 시 촉진방안

해외취업의 기회가 있다면 '취업한다'가 7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해외취업하고 싶은 국가로 호주 28.3%, 캐나다 26.6%, 미국 16.8%, 기타 11.6%, 유럽 10.4%, 일본 6.4%순으로 나타났다. 1학년에서는 캐나다(31.7%), 2,3학년에서는 호주(39.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 캐나다

등 북미주지역과 일본,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활발할 것으로 전망되었다(남성일, 1998).

해외취업 시 장애요인으로 의사소통부족이 63.0%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는 기존의 연구와 일치한다(정기선, 1994). 다음으로 해외거주 경험부족(13.3%), 문화적, 사회적 차이(10.4%), 관련정보 수집에 어려움(9.2%), 기타(4.0%)순으로 나타났다. 해외취업이 촉진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는 외국어 교육의 활성화(26.0%)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해외인턴제도 개발(21.4%)과 해외 구인 처 정보수집 및 개발(17.9%), 해외교육기관과의 상호교류를 통한 정보가(14.5%), 선진국과 격차 없는 교육과 교육자료 개선(11.0%), 교환과 유대관계개선(9.2%)로 순으로 나타났다. 1학년에서는 외국어 교육과 해외 인턴제도가 공히 26.9%로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2, 3학년에서는 외국어 교육이 24.6%로 가장 많게 나타나 해외취업 시 개선점으로 외국어 교육의 중요성을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취업을 대비해 대학생활에 필요한 활동으로 어학관련동아리(69.4%)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해외취업은 그 직종이 정보기술 분야 등 특정 분야의 전문 직종에 치우쳐 있고 상당한 외국어 실력을 갖추어야하는 등, 까다로운 요건을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지 않다(한국산업인력공단, 1999). 치기공 분야 역시 어학능력 뿐만 아니라 경력, 직무능력 등 구인조건을 충족시킬 국내인력의 확보와 함께 인턴·문화교류 등에 의한 진출을 통해 세계화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자질을 향상시키고 해외진출 가능 인력을

사전 육성하는 등 기반확대가 필요하다. 향후 세계적인 감각과 해외취업 시대에 걸맞은 교육을 대비하기 위하여 전공과목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외국어교육의 활성화 및 해외인턴제도 개발에 따른 해외인력진출방법의 다양화를 도모함으로써 해외일자리 확보, 국가 이미지 개선, 해외진출기업 경쟁력 강화, 지역전문가 육성 등을 통해 청년실업 완화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음을 본 연구결과는 시사하고 있다.

2.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연구방법 및 결과 해석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1) 본 연구에서는 대구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치기공과 학생만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지역특성에 따른 연구변수 값의 변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전체 치기공과 학생으로의 확대 해석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2) 표본의 수집을 설문지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측정값의 객관적 타당성을 보장할 수 없다.

3) 해외취업에 관한 자료와 취업현황에 대한 자료들이 부족하여 일반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에 관한 의식 조사 연구에 관한 조사를 하기위해 대구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2개 대학 치기공과 학생 173명을 대상으로 개별 자기 기입법에 의한 설문조사를 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치기공과 재학생들의 입학 시 자신의 적성을 고려해서 선택한 경우가 31.8%로 가장 많았으며, 치기공과 선택 시 정보습득의 경로는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다'가 20세 이하에서 57.3%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2. 전공에 대한 만족도로 보통이라는 응답이 48.6%로 나타났으며 입학 전 학과사전 지식 정도와 전공만족도, 전공불만족은 연령별로 차이가 있었다. 전과할 기회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전과를 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75.1%로 전과를 하겠다는 응답보다 많았으며, 전공과목에 대한 불만족은 2.3%로 나타나 치기공과 학생들의 학과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취업 동기로는 경제적 이유가 58.4% 가장 많이 나타났고, 직장선택시 조언자로 윗사람 · 선배에게 도움을 받겠다는 응답이 53.2%로 나타났다. 좋은 직장을 위해 전문적 기술을 가져야 한다는 응답이 64.7%로 가장 많았으며 연령별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직장선택 기준으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 가능한 곳이라는 응답이 51.4%로 가장 많아 치기공과 학생들은 직장을 선택할 때 자기 판단을 중시하며 자아실현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 론

일부 전문대학 치기공과 대학생들의 해외취업

4. 취업을 희망하는 근무처로 치과대학 병원 기공실이 32.9%로 가장 많았으며, 21세 이상 2,3학년에서는 도재기공(31.9%), 20세 이하 1학년에서는 임플란트 (26.9%)분야를 선호하였다.

5. 해외취업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91.3%, 해외취업의 기회가 있다면 취업하겠다가 77.5%로 나타나 치기공과 학생들은 해외취업에 관심이 많았으며 해외취업에 대한 의사 역시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취업 시 희망국가에 있어 연령별, 학년별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6. 해외취업 시 장애요인으로 의사소통부족이 63.0%로 나타나 가장 주요한 장벽이며, 해외취업이 촉진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외국어 교육의 활성이 26.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으며, 1학년에서는 외국어 교육과 해외 인턴제도가 공히 26.9%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2,3학년에서는 외국어 교육이 24.6%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해외취업을 대비해 대학생활에 필요한 활동으로 어학관련동아리(69.4%)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치기공 분야의 취업의식 및 해외취업에 있어 전문성에 따른 직무능력과 어학능력을 향상시켜 해외진출 가능 인력을 사전 육성하는 관리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으며, 외국어교육의 활성화 및 해외인턴제도 개발에 따른 해외인력 진출방법의 다양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김화주. 치위생과 학생들의 학과 만족도 및 해외취업에 관한 의식, 원광대학교 보건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남성일. 해외취업 전망 및 촉진방안 연구, 서강경제 논집, 109-132, 1998.

노동부. 해외취업 촉진대책, 교육인적자원부, 2006.

박양근·남상균. 해외취업 현황과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산업인력공단, 1999.

정기선. 해외 일시취업과 스트레스, 한국사회화, vol. 28, 115-141, 1994.

최에스더. 치기공과 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한국산업인력공단. 각국노동시장정보, 1999.

황성원.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Fuerst EV, Wolf LV. Fundamentals of Nursing J. B. Lippincott Co. 1954.